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¹⁾

박형대*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exodus) 혹은 해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언약파기로 인한 그들의 추방(exile) 즉,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에 근거한 남은 자들의 해방(new exodus) 즉, 포로 귀환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그런데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창 3:22-24)이나²⁾ 가인이 거주지에서 쫓겨난 것(창 4:14, 16)과 같은 것도 일종의 ‘추방’으로,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창 11:31-12:4)이나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간 것(창 28:1-5)과 같은 것은 일종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웬지 ‘추방’은 부정적인 이유에, ‘해방’은 긍정적인 이유에 근거한 ‘떠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추방과 해방’을 구약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애굽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해방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 1) 본 논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손니치 문화센터에서 열린, 해방 70주년 기념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학술세미나(제117회,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는 해방과 추방,” 2015년 8월 14-17일)에서 발표되었다. 좋은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2) 왕대일(“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17 [2015], 10)은 “추방을 신학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이 맨 먼저 벌어진 현장은 에덴이었다”고 기술한다.

끌려간 ‘추방’ 주제는 구약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구약성경의 신학이 밀바탕에 깔려있는 신약성경에서³⁾ ‘추방과 해방(exile and exodus)’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주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언약 성취와 회복 측면에서 “여전히 포로 즉, 추방 상태”에 있다고 여겼다고 보는 학자들에⁴⁾ 의해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추방보다는 해방이 강조된 ‘새 출애굽(new exodus)’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다뤄졌는데, 이러한 경향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해방이 필요한 상태, 다시 말해 죄/추방이 전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소고에서 필자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추방과 해방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먼저 정리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한 뒤,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주제를 이 새로운 방법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초기 연구 경향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지 발렌틴(George L. Balentine)과 닉슨(R. E. Nixon)의 글을 들 수 있다. 발렌틴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⁵⁾ 기초

3)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신학적 소통에 대해서는 박형대, “구약과 신약의 소통,” 『Canon&Culture』 13 (2013), 5-36을 참고하라.

4) 예.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I* (Minneapolis: Fortress, 1992), 268-270 (N. T. 라이트,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44-448); N. T. Wrigh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II* (Minneapolis: Fortress, 1996), xvii-xviii, 126-127. 신약 당시 유대인들의 ‘추방/포로’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글이 하나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George L. Balentine, “The Concept of the New Exodus in the Gospels,” Ph. D.

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새 출애굽으로 이해하는 논문을 기고하였다.⁶⁾ 그는 출애굽을 “메시아적 구원의 모델 혹은 전형(the *Vorbild* or prototype of the messianic redemption)”으로 간주하고,⁷⁾ 요한복음의 세 유월절과 관련된 표적(성전정화, 오병이어와 하늘의 만나 등)과, 공관복음의 유월절(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세례, 변화(마 17:1-8; 막 9:2-8; 눅 9:28-36),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사(눅 9:51-18:14),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마 27:51; 막 15:38; 눅 23:45) 등에서 새 출애굽 주제를 읽는다.⁸⁾ 발렌틴의 기여는 신약성경의 유월절을 새 출애굽 사건으로 논증하여 예수님의 삶을 새 출애굽으로 제시한 데 있다.

닉슨은 틴데일 학회 모임에서 발표한 자신의 강연(“The Tyndale New Testament Lecture, 1962”)을⁹⁾ 기초로 얇은 단행본을 출간하였다.¹⁰⁾ 그는 출애굽 사건과 구약에서의 출애굽 모티프 사용 및 출애굽과 관련되는 주제인 ‘언약과 ‘가나안 정복을 살펴본 다음,¹¹⁾ 신약성경 전체를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먼저, 그는 모형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새 출애굽으로 해석하면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요소들 즉,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눅 1:67-79), 시므온의 고백(눅 2:30), 애굽 왕 바로와 비교되는 헤롯대왕(마 2:16) 등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되는 여러 요소들 뿐 아니라, 세례(마 3:15)와 시험(마 4:1; 눅 4:1), 산상설교, 제자들(막 6:34; 마 9:36)과 세대(막 9:19; 눅 9:41; 출 32:7)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이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61). 책이나 논문 제목으로 ‘new exodus’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학자가 발렌틴인 것 같다.

6) George L. Balentine, “Death of Jesus As A New Exodus,” *Review and Expositor* 59:1 (1962), 27-41.

7) Balentine, “Death of Jesus,” 27.

8) Balentine, “Death of Jesus,” 30-41.

9) 이 강연은 1962년 7월 11일에 캠브리지에서 틴데일 성경연구 모임(the Tyndale Fellowship for Biblical Research)을 위해 수행되었다.

10) R. E. Nixon, *The Exodu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yndale, 1963).

11) Nixon, *Exodus in the New Testament*, 8-10.

차지한다는 가르침(가나안 정복과 비교하여; 눅 13:28-30)과 유월절 등의 기록에서 새 출애굽 주제를 발견한다. 공관복음서 외에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¹²⁾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본문들을 간단히 지적한다.¹³⁾ 그러면서 야고보서에는 라합의 믿음이 언급된 것(2:25) 외에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요한서신에는 출애굽 모형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발렌틴이 요한복음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신약성경의 출애굽 모티브를 다룬 반면, 닉슨은 사건과 주제뿐 아니라 인물까지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출애굽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다보니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산만하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모세뿐 아니라 모세와 연결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고려된다.¹⁴⁾ 이점을 인식해서인지, 닉슨은 ‘판단의 주관성(subjectivity of judgment)’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신약성경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밝힌다.¹⁵⁾ 흥미로운 것은 갈릴리 바다(혹은 호수)와 관련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에 대하여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발렌틴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요 6:19)을 출애굽 전통 측면에서 바라보지만,¹⁶⁾ 닉슨은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출애굽의 반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¹⁷⁾ 발렌틴이 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홍해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견지에서 바라본 반면, 닉슨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12) 베드로전서의 출애굽 모티브만을 다룬 논문으로 Paul E. Deterding, “Exodus Motifs in First Peter,” *Concordia Journal*, 7:2 (1981), 58-65가 있다.

13) Nixon, *Exodus in the New Testament*, 20-29.

14) Nixon, *Exodus in the New Testament*, 14.

15) “A certain subjectivity of judgment is almost inevitable.” (Nixon, *Exodus in the New Testament*, 12).

16) Balentine, “Death of Jesus,” 33.

17) Nixon, *Exodus in the New Testament*, 12.

것을 지나치게 연결 짓는 것을 우려한 듯하다.¹⁸⁾

닉슨과 같이 출애굽 모티브와 주제 면에서 신약성경의 출애굽을 말하면서도 발렌틴과 같이 사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를 다룬 이로 어거스틴 스타(Augustine Stock)이 있다.¹⁹⁾ 그는 ‘출애굽’, ‘광야’, ‘제4복음서의 모세’라는 세 개의 장으로 ‘신구약의 광야길’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닉슨의 책(32쪽)보다 많이 두 겹이지만(156쪽), 장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스타의 책은 더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출애굽’과 ‘광야’가 구분되어 다루지지만, 막상 두 개념이 신약성경에서 발견된다고 기술된 것을 보면 겹치는 내용이 많다. 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출애굽’과 ‘광야’가 사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야’에 부합되는 소재는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은 장소명일 것이다. ‘출애굽’과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은 ‘광야’보다는 시내 산에서 체결된 ‘언약’이나 ‘가나안 기업’과 같은 주제일 것이다. ‘출애굽’과 ‘광야’를 주요한 두 기둥으로 삼고 책을 쓴 스타는 끝맺는 말에서는 심지어 “the Exodus=Wilderness theology”와 같은 표현까지 사용하여 두 개념을 동일시한다.²⁰⁾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사건을 정확한 기준 없이 신약성경과 연결 짓다보니 내려진 결론이다.

출애굽 사건이나 개념 자체보다는 조직신학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출애굽을 접근한 연구도 있다. 데이빗 도브(David Daube)와²¹⁾ 프레드 피셔(Fred L. Fisher)이다.²²⁾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18)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와 관련된 사역에 대한 최근 연구는 발렌틴의 입장에서 수행된다.

19) Augustine Stock, *The Way in the Wilderness: Exodus, Wilderness and Moses Themes in Old Testament and New* (Collegeville: Liturgical, 1969). 이 책에는 발렌틴과 닉슨의 글이 언급되지 않는다.

20) Stock, *Way in the Wilderness*, 153.

21) David Daube,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tudies 2 (London: Faber and Faber, 1963).

22) Fred L. Fisher, “The New and Greater Exodus: The Exodus Pattern in the New

출애굽 사건을 사용한다. 특별히, 도브가 출애굽의 패턴의 하나로 제시하는 ‘주인 변경(a change of master)’은²³⁾ 출애굽과 연관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에 대한 초기 연구를 보면, 출애굽 사건과 개념과 인물 등 다양한 요소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소개된 글 가운데, 발렌틴의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재를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적용해본 글이다. 닉슨은 출애굽과 연관될 만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스타운 출애굽과 연관된 요소 가운데 ‘광야와 ‘모세’를 렌즈 삼아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았다. 도브와 피셔는 출애굽 사건을 사용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2. 최근 연구 경향

최근 20여 년 동안 이뤄진 신약성경의 새 출애굽 연구는 주로 구약성경 한 책, 특히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주제를 신약성경 한 책의 새 출애굽 주제에 대입해보는 쪽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리키 왓츠(Rikki E. Watts)의 *Isaiab's New Exodus in Mark*와²⁴⁾ 데이빗 파오(David W. Pao)의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가²⁵⁾ 있다. 왓츠는 마가복음의 서문과 구조, 헬라어 ‘호도스’(ὁδός, ‘길’)의 사용과 ‘길 신학’(막 8:22/27-10:45/11:1을 중심으로), 이사야서의 치유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등을 통해,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주제가 “마가복음을

Testament,” *SwJT* 20 (1977), 69-79.

23) Daube, *Exodus Pattern*, 42-46.

24) Rikki E. Watts, *Isaiab's New Exodus in Mar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1997]). 이 책은 1997년에 J. C. B. Mohr에서 출판된 것을 재판한 것이다.

25) David W.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UNT/Biblical Studies Library (Tübingen/Grand Rapids: Mohr Siebeck/Baker Academic, 2000).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가장 적절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²⁶⁾ 자신의 연구의 출발점을 사도행전 “여행기사 자체에 대한 신학적 조명 부재”로²⁷⁾ 삼은 파오도 누가행전의 핵심구절(눅 4:16-30; 24:44-49; 행 1:8; 13:46-47; 28:25-28)에 반영된 해석학적 틀을 기초로 사도행전을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주제로 재조명한다. 그는 사도행전 새 출애굽의 대행자(agent)를 ‘말씀(λόγος)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핵심 논거로 ‘말씀의 성장에 관한 세 구절(행 6:7; 12:24; 19:20)을 사용한다.²⁸⁾

초기 연구와 비교할 때, 왓츠와 파오 연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신약성경의 새 출애굽 주제를 모형론이나 주제보다는 ‘구약성경의 인용’ 혹은 ‘본문 사용’ 혹은 ‘본문간상관/본문상관성(intertextuality)’의 견지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본문 형성과정보다는 최종본문 자체 분석을 중시하는 학계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왓츠의 연구는 마가복음의 새 출애굽 주제에 관한 연구들에 영향을 끼쳤다. 제임스 존스톤(James A. Johnston)과 김선옥은 왓츠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²⁹⁾ 국내학자인 김선옥

26) Watts, *Isaiah's New Exodus in Mark*, 369.

27)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2-3: “For those who emphasize the theological contribution of Luke, the travel narrative in Acts is frequently considered to be a framework in which theological ideas can be deposited. The travel narrative itself is, therefore, not considered worthy to be the focus of serious theological examination.”

28)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160, 167-168. 파오 이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예루살렘 여행기사(9:51-19:44)를 신명기적 출애굽 여정으로 이해하고 누가행전 전체를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책으로 David P. Moessner, *Lord of the Banquet: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Lukan Travel Narrative* (Minneapolis: Fortress, 1989)가 있다(특히 305-307쪽 참고).

29) 두 논문 모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수행된 박사학위논문이다. James A. Johnston, “Mark 2:1-3:6 and the Sequence of Isaiah's New Exodus in Isaiah 57:14-58:14,”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8); Sun Wook Kim, “Jesus' Missional Movement in Mark 4:35-8:21: Markan Spatial Presentation and Its Hermeneutical Significance,” Ph. D. Dissertation

은 학위논문의 제4장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야 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라는 글을 발표했다.³⁰⁾ 그는 다섯 가지 측면(“건너감”, “바다를 꾸짖는 것”, 시간적 배경인 “저물 때에”, “불신앙의 모습”, “반응”)에서³¹⁾ 출애굽 기사와 마가복음 4장 35-41절을 연결한다. 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출애굽의 여러 요소 가운데 ‘홍해 도하’와만 관계된다. 또한 ‘요나 이야기’도 본문의 배경으로 제시된다.³²⁾ 그러므로 마가복음 본문을 ‘새 출애굽’ 주제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 짓기 위해서는 출애굽과 연관되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 본문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현우의 연구는³³⁾ 출애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만으로 마가복음 1장 48절을 주해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광야’, ‘요단강’, ‘세레 요한의 음식’, ‘성령 부으심’은 출애굽의 구약적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도출되었 다기보다는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유추되는 출애굽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성령 부으심’은 에스겔 39장 27-29에 기초하므로³⁴⁾ 출애굽에서 파생된 후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새 출애굽 준비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회개’가³⁵⁾ 과연 출애굽의 중심 주제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로드리고 모랄리스(Rodrigo J. Morales)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읽을 수 있는 새 출애굽 주제를 갈라디아서 3-6장에 적용하였다.³⁶⁾ 이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3).

30) 김선옥,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신약논단」 21:2 (2014), 365-408.

31) 김선옥,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393-397.

32) 김선옥,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389-393.

33) 신현우, “세레 요한과 새 출애굽: 마가복음 1:4-8 주해,” 「신약논단」 20:1 (2013), 61-95.

34) 신현우, “세레 요한과 새 출애굽,” 85-86.

35) 신현우(“세레 요한과 새 출애굽,” 70)는 레위기 26장 40-42절을 기반으로 회개가 새 출애굽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피력한다.

아서 한 권만을 고려한 파오나 왓츠보다 구약성경을 더 포괄적으로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Spirit)’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후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단점도 있다.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몇 구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C절(“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을 새 출애굽 주제로 연결 짓는다.³⁷⁾

구약성경의 일부와 신약성경의 일부를 출애굽의 관점에서 연결 짓는 위의 연구들과 달리, 구약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출애굽을 하나의 신학적 틀로 이해하고 바울서신 해석에 적용한 책으로 스콧(J. M. Scott)의 *Adoption as Sons of God*과³⁸⁾ 실비아 키스마트(Sylvia C. Keesmaat)의 *Paul and his Story*가³⁹⁾ 있다.⁴⁰⁾ 스콧은 선지서의 종말론적 강화의 중요한 패턴을 ‘범죄-추방(exile)-귀환과 회복’으로 보고 갈라디아서 4장 1-7절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과 로마서 8장 15, 23절을 출애굽 전통과 연결 짓는다. 키스마트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주후 49년에⁴¹⁾ 내려진 칙령으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귀환을 로마서

36) Rodrigo J. Morales, *The Spirit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New Exodus and New Creation Motifs in Galatians*, WUNT 2:282 (Tübingen: Mohr Siebeck, 2010).

37) Dave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TrinJ* 24 ns (2003), 243-258.

38) James M.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Huiotbesia in the Pauline Corpus*, WUNT 2:48 (Tübingen: Mohr Siebeck, 1992). 이 책은 스콧이 튀빙겐 대학에서 Peter Stuhlmacher의 지도를 받고 1989년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39)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Re)Interpreting the Exodus Tradition*, JSNTSup 18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40)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국내논문으로 Ki Hyun Kwon, “The New Exodus Theme in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in Matt. 13.31-32,” 「진리와 학문의 세계」 27 (2013), 29-55가 있다. 그는 신약시대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새 출애굽 주제로 전제하고 에스겔과 다니엘에 등장하는 나무(겔 17:22-23; 31:5-6)와 뜨인 돌(단 4:10-12, 21-22) 상징을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에 적용한다. 그러나 전제된 내용이 결론으로 정리된 측면이 있다.

41)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은 Orosius의 증언에 기초하여 주후 49년에 내려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Jerome Murphy-O’Connor(*St. Paul’s Corinth: Texts and Archaeology*, 3rd revised and expanded ed. [Collegeville: Liturgical, 2002],

8장 14-39절의 역사적 배경으로 상정하고,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면서 출애굽 '전통(tradition)'을 창조 전통과 함께 사용했다고 본다. 키스마트의 해석학적 적용은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의 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전례가 될 수 있다.'⁴²⁾

출애굽의 신학적 틀로 바울서신을 바라보면서도 브룬슨과 키스마트는 '본문간상관(intertextuality)'을 찾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신약성경의 출애굽 연구에 다른 본문과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주로 사용된 데에 반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출애굽과 연관된 요소를 연구한 책들도 있다. 모형론을 사용하여 마태복음을 분석한 데일 엘리슨(Dale C. Allison)과,⁴³⁾ 단어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을 출애굽의 측면에서 분석한 윌리엄 웹(William J. Webb)이다.⁴⁴⁾ 리차드 패터슨(Richard D. Patterson)과 마이클 트라버스(Michael Travers)는 출애굽의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함으로써⁴⁵⁾ 닉슨보

152-158)는 Orosius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Suetonius의 *Claudius* 25, Dio Cassius의 *History* 60.6.6, Philo의 *Embassy to Gains* 156-157 등의 사료를 기초로 주후 41년에 칙령이 내려진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를 바꿀 만큼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다.

42) 사사기의 출애굽 전통에 대한 논문이지만 출애굽 전통을 오순절 신앙 및 개인 신앙고백으로 이어간 흥미로운 논문으로 Lee Roy Martin, "Where are all his wonders?: The Exodus Motif in the Book of Judges," *JBPR* 2 (2010), 88-109가 있다. 출애굽 모티브를 현실 문제에 직접 대입해 본 논문으로는 Jannie Malan, "A Complement to the Exodus Motif in Theolog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61 (1987), 3-13이 있다.

43) Dale C. Allison,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Edinburgh: T&T Clark, 1993).

44) William J. Webb, *Returning Home: New Covenant and Second Exodus as the Context for 2 Corinthians* 6.14-7.1, JSNTSup 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45) 이들은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The Exodus as Historical Fact", "The Exodus as Historical Witness Against Israel", "The Exodus in God's Declarations", "The Exodus as a Source of Institution, Warning, and Admonition", "The Exodus as Testimony, Praise, and Prayer", "The Exodus as a Source of Hope" 이상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Richard D. Patterson and Michael Travers, "Contours of the

다 더 명료하게 정리하지만 신약성경의 출애굽 모티브를 다룬 부분은 닉슨의 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최근 20여 년의 연구 경향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등에서 발견되는 새 출애굽 주제를 신약성경 각 권 해석에 적용하거나 출애굽 모티브를 하나의 신학적 틀로 이해하여 신약성경 본문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전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신약성경의 출애굽을 다루면서도, 정작 ‘만아들의 죽음’과 같은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모티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신약성경의 출애굽(해방) 및 추방 주제를 다룰 때는 출애굽 모티브와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제시된 뒤에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듯싶다.

3. 연구 방법

출애굽은 구약시대에 일어났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구약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이 신약 저자에 의해 사용될 경우 그 전통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형성된 전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약성경 전체가 지니고 있는 새 출애굽 주제를 신약성경 전체에 조명해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미 닉슨, 패터슨과 트라버스 등이 사용했으나 구약성경 출애굽 주제 분석과 신약성경으로의 적용이 보다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출애굽 주제를 직접 다뤄야 할 것이나, 본 소고에서는 기존 연구 가운데 하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출애굽과 연관된 모티브와 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의 출애굽 모티브와 주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

Exodus Motif in Jesus' Earthly Ministry," *WTJ* 66 [2004], 29-37).

으로 사무엘 뢰벤슈탐(Samuel E. Loewenstamm)의 *The Tradition of the Exodus in Its Development*(히브리어)가 있다.⁴⁶⁾ 히브리어 원본의 초판은 1968년에, 2판은 1972년에 출판되었는데, 구약성경과 유대교 문헌을 중심으로 출애굽 전통을 다루었고 신약성경은 다루지 않았다.

뢰벤슈탐은 출애굽 모티브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재앙(the plagues of Egypt)”이다.⁴⁷⁾ 둘째는 “유월절 제사(the Paschal sacrifice)”이다.⁴⁸⁾ 그런데 그는 유월절 전통과 관련하여 유대교 문헌에는 구약성경과 달리 “멸망케 하는 자”(Destroyer)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한다.

Our view necessitates a rejection of the scholarly consensus, namely, that the tradition of the slaying of the firstborn and that of the paschal sacrifice were originally one and the same and that this unity can be revealed by means of historical restoration.⁴⁹⁾

이러한 태도는 애굽 재앙과 관련하여 취한 그의 태도와 대조된다. 뢰벤슈탐은 구약성경의 애굽 재앙이 유대교 문헌에서 다르게 제시된 것을 ‘요약되었거나 ‘설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⁵⁰⁾ 그의 이러한 경

46) Samuel E. Loewenstamm, *The Tradition of the Exodus in Its Development* (in Hebrew), enlarged ed. (Jerusalem: Magnes, 1987);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translated from the Hebrew by Baruch J. Schwartz (Jerusalem: Magnes, 1992).

47)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69-171.

48)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189-218.

49)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18.

50)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167: “Either the accounts existing outside of the Pentateuch may be explained as abridged versions of the Pentateuchal narrative, containing one modification or another, or else the Pentateuch may be explained as having collected, as thoroughly as possible, all available traditions on the plagues, accepting, rejecting and adapting them to each other.” 뢰벤슈탐은 제 2성전기 유대교 문헌에 근거하여 구약성경의 내용을 부정(否定)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개신교 내의 일반적인 성경해석 방법론은 아니다. 우리는 구약성경만을 표준(정경)으로 인정하고 제 2성전기 유대교 문헌은 표준(정경)으로 인정하지

항은 신약성경에서 장자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 짓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되었다고 추측된다. 더욱이, 우리는 뢰벤쉬탐의 연구를 토대로, ‘유대교 문헌과는 달리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같이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모티브를 결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뢰벤쉬탐과는 달리 ‘유월절 제사’와 ‘장자사망’ 모티브를 하나의 모티브로 고려한다. 셋째는 “출애굽 사건 자체(the Exodus)”이고,⁵¹⁾ 넷째는 “홍해의 갈라짐(the parting of the sea)”이다.⁵²⁾

뢰벤쉬탐의 네 가지 모티브 외에도 도브가 출애굽의 패전의 하나로 제시하는 ‘주인 변경(a change of master)’과 같은 것을⁵³⁾ 모티브로 추가하고 싶지만, ‘재앙,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출애굽 사건 자체, 홍해의 갈라짐’ 네 가지 모티브만을 고려하여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을 다루도록 한다. 다만, ‘홍해의 갈라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와 관련하여 ‘홍해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약성경 몇 구절(나 1:4; 사 50:2; 44:27; 19:5; 욥 14:11)이 언급되기에,⁵⁴⁾ 이 구절들을 기초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홍해의 갈라짐’ 모티브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네 가지 출애굽 모티브와 함께 뢰벤쉬탐이 출애굽과 연관된 주제로 제시하는 것은 시내 산 언약(the Sinaitic Covenant), 가나안 정복(the Conquest of Canaan), 시온 전통(the Davidic tradition of Zion)이다.⁵⁵⁾ 첫째 주제인 ‘시내 산 언약과 관련하여, 출애굽과 시내 산 언약이 하나

않는다.

51)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22-232.

52)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33-292.

53) Daube, *Exodus Pattern*, 42-46.

54)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42-243.

55)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31. 이 외에도, 새 출애굽 주제와 관련된 요소로, 종살이로부터의 구원(시 81:7; 78:42-43;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5-26),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 하나님(시 105:25;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5), 배교와 불순종 및 경고(신 9:7; 왕하 21:15; 렘 7:25; 11:7;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26)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구약본문으로 신명기 29장 24절, 열왕기상 8장 9절, 예레미야 11장 3-4절, 31장 31-32절, 34장 13절이 제시된다.⁵⁶⁾ 뢰벤쉬탐은 출애굽 전통과 시내 산 언약 전통을 다르게 보려는 시도에 대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⁵⁷⁾ 멘델홀(G. E. Mendenhall)과 베이얼린(W. Beyerlin)의 연구에 기초하여 히타이트 왕들과 봉신들과의 조약을 통해서도 역사적 사건과 언약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다고 본다.⁵⁸⁾

둘째 주제인 ‘가나안 정복’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뤄졌지만, 뢰벤쉬탐은 가나안 정복을 출애굽과 연관된 주제로 본다.⁵⁹⁾ 한편, 홍해의 갈라짐 견지에서 출애굽기 14-15장을 이사야 11장 11-16절 및 1장 9-11절과 연결 짓는 마이클 피쉬베인(Michael Fishbane)은,⁶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요단강 물을 말리신 사건(수3-5장)으로 이어지면서 가나안 정복과 연결된다고 보았다.⁶¹⁾ 다만, ‘가나안 정복’보다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이 신약성경을 다룰 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뢰벤쉬탐은 사무엘하 7장 23절, 시편 78편, 출애굽기 15장 8-17절, 이사야 11장 1, 15-16절, 예레미야 23장 5, 7-8절을 기초로 출애굽과 시온 전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⁶²⁾ 『에스라4

56)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31-32, 32 n. 18.

57)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32-38.

58)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38.

59)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39-41.

60)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8 [1985]), 7: “When old mythic theomachies are subsequently reused to underpin purely historical narratives or hopes (as the motif of YHWH against the chaotic waters in Exod. 14-15, Isa. 11:11-15, or 51:9-11 suggests), . . . , the remarkable capacity of tradition radically to transform a diverse inheritance and thereby continually to build up a sense of national history and destiny is fully attested.”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해석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즉, scribal comments and corrections, legal exegesis, Aggadic exegesis, mantological exegesis (예언적 주해)이다(ix-xi).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Aggadic exegesis 가운데 Aggadic transformations of non-legal Pentateuchal traditions의 예에 속한다.

61)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358-368.

62) Loewenstamm, *Tradition of the Exodus*, 41-43.

서』에서 이러한 이해와 다른 전개를 읽을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을 통해, 구약위경보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의 출애굽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할 근거를 (멀만큼 하는 자에 대한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의 입장과 더불어) 하나 더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퇴벤쉬탐이 출애굽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 모티브 즉, ‘재앙,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출애굽 사건 자체, 홍해의 갈라짐과, 세 가지 주제 즉, ‘시내 산 언약,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 시온 전통을 고려하여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 혹은 추방과 해방 주제를 다뤄보자. 연관된 모티브와 주제가 등장하면 성경기자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퇴벤쉬탐의 네 가지 출애굽 모티브와 세 가지 출애굽 주제를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모티브인 ‘재앙과 관련해서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고난을 일종의 ‘재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각종 질병, 장애,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인한 고생 등이 있다.⁶³⁾ 이러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된다. 마태복음 8장 16-1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사 53:4 인용]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⁶⁴⁾ 병자를 해방

63) 신약성경에 소개되는 개인 고난에 대해서는 박형대, “개인 고난에 관한 신약 본문 주해: 신약 성경에 소개된 개인 고난,”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3 (2012), 95-111쪽을 참고.

64) 자세한 논의는 박형대, “개인 고난에 관한 신약 본문 주해,” 100-101쪽 참고.

시켜 주시기 위해 친히 추방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재앙’이라는 출애굽 모티브를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모티브인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는 첫 번째 모티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티브가 열 번째 재앙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요 1:18) 동시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다(롬 8:29).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2-24절의 내용을 통해, 초태생인 예수님은 대속되지 않고 헌물로 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⁶⁵⁾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장자사망’ 모티브를 읽을 수 있다. 유월절 제사 모티브에 대해서는 발렌틴을 필두로 이미 여러 학자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짊어지시되, 마지막 재앙까지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양이시라고 신약성경은 증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유월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모티브를 읽을 수 있다.

세 번째 모티브인 ‘출애굽 사건’은 닉슨 이래로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여행 등을 해석하는 틀로 제시되었다. 심지어 파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말씀이 모든 민족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명제를 논증하는 논문을 썼다.⁶⁶⁾ 모든 재앙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방’으로 인해 이제 모든 민족은 ‘해방(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다. 키스마트에 따르면, 신약의 성도들은 출애굽 이후 기업을 얻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다.⁶⁷⁾

65) 자세한 논의는 Hyung Dae Park, *Finding Herem?: A Study of Luke-Acts in the Light of Herem*, LNTS 357 (London/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7); 『헤렘을 찾아서?: 헤렘의 빛으로 본 누가행전 연구』, 박형대 역 (서울: 그리스심, 2011), 344-357쪽 참고.

66)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67) Keesmaat, *Paul and his Story*, 135: “For those to whom this epistle [Romans] was written the exodus was still underway, the hope of the inheritance of the new creation remained in the future, and the wilderness continued to press on all sides.”

네 번째 모티브인 ‘홍해의 갈라짐’은 ‘홍해를 꾸짖으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또한 발렌틴 이래로 김선옥 등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의 물에 대한 능력과 관계된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 사도행전 27장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풍랑 기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풍랑에도 불구하고 승객 276명 전원의 구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비교. 행 19:1-5)를 출애굽 당시 홍해와 요단을 건넌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출애굽 모티브를 명확하게 정한 뒤에 신약본문을 분석하면, 더 많은 출애굽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주제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모든 재앙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의 출애굽과 홍해 도하가 가능하게 되었다’와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인 ‘시내 산 언약,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 시온 전통’ 측면에서 신약성경을 조망해보자. 이 가운데 첫째인 ‘시내 산 언약’과 셋째인 ‘시온 전통’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내와 시온’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표현된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21-31절에서는 ‘시내 산—종을 낳은 자(하갈)—여종의 아들과 ‘예루살렘(시온 산)—자유자(사라)—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의 도식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 ‘시내와 시온’ 측면에서 대비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21장) 개념이 ‘시내와 시온’을 반영한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8-24절에 그려진 시내 산과 시온 산 대비를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로 볼 때,⁶⁸⁾ 히브리서는 ‘시내 산 언약’과 ‘시온

68) K. Son, *Zion Symbolism in Hebrew: Hebrews 12:18-24 as a Hermeneutical Key to*

전통'의 틀에 기초한다. 성전이라는 요소를 '시내와 시온' 관점에서 보면, '시내는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인(히 8:5) 성막과 성전과 연결되고 '시온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전과 성령의 거하는 전이 된 성도 및 교회와 연결된다.

이처럼 출애굽과 연관된 첫째 주제인 '시내 산 언약과 셋째 주제인 '시온 전통'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때로 비교 혹은 대조된다. 그러면서 두 주제 모두 '기업'을 얻는 것과 궁극적으로 연결된다. 즉, 둘째 주제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이 첫째와 셋째 주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복음을 믿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시온 산에 서 있는 자가, 성령을 받고 새 언약(렘 31:31-34; 히 8:7-13)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으며 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롬 8:15) '천국'과 '안식'을 소유한다고,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된다고(벧전 1:4) 거듭 강조한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에서 '함께 참여한 자들'(μέτοχοι)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과 같은 둘째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더불어 신약성경은 시온 전통에 서서 가나안과 같은 하늘 기업을 받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마 10:38과 병행 구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행 14:2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딤후 3:12), "우리도 그[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히 13:13), 바꿔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방(출애굽)'을 하였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추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리라고 강하게

the Epistle, 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 (Carlisle: Paternoster, 2005)에 이러한 주장이 잘 논증되어있다.

권면한다. 주님의 추방을 통해 해방을 얻은 자는 추방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 간 이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29:5-14) 하고 편지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추방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해방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출애굽과 연관된 네 가지 모티브와 세 가지 주제가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닉슨이 출애굽 주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던 야고보서와 요한서신에서도 이러한 모티브와 주제로 접근하면 출애굽 전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가는 말

신약성경은 증언한다.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로마 제국 치하에 있기에 추방(혹은 포로, exile)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출애굽(혹은 해방, exodus)의 삶을 사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을 새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시기 위해 추방의 삶을 사셨다. 더불어 새 출애굽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추방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음을 증언한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 견지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뢰벤쉬탐의 구약성경의 출애굽 모티브를 약간 수정한 ‘재앙,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출애굽 사건 자체, 홍해의 갈라짐과 출애굽과 연관된 주제를 역시 약간 수정한 ‘시내 산 언약,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 시온 전통’ 견지에서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재앙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의 출애굽과 홍해 도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출애굽)을 맞이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시내 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시온의 복음(갈 4:21-31; 히 12:18-24) 위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추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리라.’

다양한 형태의 강제이주를 통한 추방의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해방과 분단 70년의 해에, 우리는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논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추방이 모든 민족 해방의 근거였다’는 점과 ‘제자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추방이 필수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해방을 향한, 때로는 해방을 위한 추방의 삶을 산 이들(다양한 형태의 강제이주를 당한 사할린, 하와이 등의 교포, 고려인, 조선족, 새터민, 이산가족 등)에 대한 바른 평가와 정당한 대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예로, 고려인들의 추방이 그들에게는 아픔과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의 강제 이주 과정에서 벼농사 등 유익한 기술을 구소련에 전달하여 이국 땅 타민족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 점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일대에 고려인 정착촌이 세워지고 만 65세가 넘으면 고려인 누구라도 비자 없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 나아가, 고난과 추방에 대한 가치가 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되면 좋을 것이다. 주님 나라 위해 수고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는 등 추방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마음이 절실하다.

<주요어>

출애굽/해방, 새 출애굽, 포로/추방, 출애굽 모티브, 시내 산 언약, 가나안 정복, 시온 전통

<Key words>

Exodus, New Exodus, Exile, Exodus Motif, Sinaitic Covenant, Conquest of Canaan, Davidic tradition of Zion

* 접수일 2015년 8월 30일, 수정일 2015년 9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28일

참고문헌

- 김선욱,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신약논단』 21:2 (2014), 365-408.
- 박형대, “개인 고난에 관한 신약 본문 주해: 신약 성경에 소개된 개인 고난,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3 (2012), 95-111.
- _____, “구약과 신약의 소통,” 『Canon&Culture』 13 (2013), 5-36.
- 신현우, “세례 요한과 새 출애굽: 마가복음 1:4-8 주해,” 『신약논단』 20:1 (2013), 61-95.
- 왕대일,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17 (2015), 5-33.
- Allison, Dale C.,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Edinburgh: T&T Clark, 1993.
- Balentine, George L., “The Concept of the New Exodus in the Gospels,” Ph. 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61.
- _____, “Death of Jesus As A New Exodus,” *Review and Expositor* 59:1 (1962), 27-41.
- Daube, David,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tudies 2, London: Faber and Faber, 1963.
- Deterding, Paul E., “Exodus Motifs in First Peter,” *Concordia Journal* 7:2 (1981), 58-65.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8 [1985]).
- Fisher, Fred L., “The New and Greater Exodus: The Exodus Pattern in the New Testament,” *SwJT* 20 (1977), 69-79.
- Johnston, James A., “Mark 2:1-3:6 and the Sequence of Isaiah’s New Exodus in Isaiah 57:14-58:14,”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8.
- Keesmaat, Sylvia C., *Paul and his Story: (Re)Interpreting the Exodus Tradition*, JSNTSup 18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Kim, Sun Wook, "Jesus' Missional Movement in Mark 4:35-8:21: Markan Spatial Presentation and Its Hermeneutical Significance,"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3.
- Kwon, Ki Hyun, "The New Exodus Theme in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in Matt. 13.31-32," 『진리와 학문의 세계』 27 (2013), 29-55.
- Loewenstamm, Samuel E., *The Tradition of the Exodus in Its Development* (in Hebrew), enlarged ed., Jerusalem: Magnes, 1987;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translated from the Hebrew by Baruch J. Schwartz, Jerusalem: Magnes, 1992.
- Malan, Jannie "A Complement to the Exodus Motif in Theolog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61 (1987), 3-13.
- Martin, Lee Roy, "'Where are all his wonders?': The Exodus Motif in the Book of Judges," *JBPR* 2 (2010), 88-109.
- Mathewson, Dave,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TrinJ* 24 ns (2003), 243-258.
- Moessner, David P., *Lord of the Banquet: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Lukan Travel Narrative*, Minneapolis: Fortress, 1989.
- Morales, Rodrigo J., *The Spirit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New Exodus and New Creation Motifs in Galatians*, WUNT 2:282,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Murphy-O'Connor, Jerome, *St. Paul's Corinth: Texts and Archaeology*, 3rd revised and expanded ed., Collegeville: Liturgical, 2002.
- Nixon, R. E., *The Exodu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yndale, 1963.
- Pao, David W.,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UNT/Biblical Studies Library, Tübingen/Grand Rapids: Mohr Siebeck/Baker Academic, 2000.
- Park, Hyung Dae, *Finding Herem?: A Study of Luke-Acts in the Light of Herem*, LNTS 357, London/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7; 『헤렘을 찾아서?: 헤렘의 빛으로 본 누가행전 연구』, 박형대 역, 서울: 그리심, 2011.
- Patterson, Richard D., and Michael Travers, "Contours of the Exodus Motif in

Jesus' Earthly Ministry," *WTJ* 66 (2004), 25-47.

Scott, James M., *Adoption as Sons of God: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Huiiothesia in the Pauline Corpus*, WUNT 2:48, Tübingen: Mohr Siebeck, 1992.

Son, K., *Zion Symbolism in Hebrew: Hebrews 12:18-24 as a Hermeneutical Key to the Epistle*, 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 Carlisle: Paternoster, 2005.

Stock, Augustine, *The Way in the Wilderness: Exodus, Wilderness and Moses Themes in Old Testament and New*, Collegeville: Liturgical, 1969.

Watts, Rikki E., *Isaiah's New Exodus in Mar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1997].

Webb, William J., *Returning Home: New Covenant and Second Exodus as the Context for 2 Corinthians 6.14-7.1*, JSNTSup 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Wright, N. 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I, Minneapolis: Fortress, 1992;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_____,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II, Minneapolis: Fortress, 1996.

<초록>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

박형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이 연구에는 1960년대부터 활발해진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먼저 비판적으로 요약·제시된다. 이들 연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새 출애굽으로 보는 관점에서, 혹은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어떤 경우이든, 방법론적으로는 ‘모형론’이 대세였다. 그러다가 최근 20년 동안에는 연구의 방향이, ‘구약성경의 한 책에서 발견되는 출애굽 주제가 신약성경의 한 책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를 테면,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새 출애굽 주제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도입·전개되는지 밝힌다. 이들 최근 연구에서는 ‘모형론’보다 ‘본문 간상관/본문관계성’을 찾는 방법론이 주로 사용된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다음, 필자는 신약성경의 출애굽 주제가 구약 신학에 근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뒤, 뢰벤취탐의 출애굽 모티브 네 개와 출애굽 주제 세 개를 약간 수정하여 분석의 틀로 삼는다. 바로, ‘재앙, 장자사망과 유월절 제사, 출애굽 사건 자체, 홍해의 갈라짐’과, ‘시내 산 언약,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음, 시온 전통’이다.

새로운 틀을 사용하여 신약성경을 추방과 해방의 관점으로 분석한 다음, 필자는 다음 세 가지 명제를 제안한다. (1)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로마 제국 치하에 있기에 추방(혹은 포로, exile)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는 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출애굽(혹은 해방, exodus)의 삶을 사셨다. (2)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을 새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시기 위해 추방의 삶도 사셨다. (3) 더불어 새 출애굽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추방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신약성경의 추방과 해방에 대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의해 러시아, 중국, 하와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강제이주를 당한 많은 한국인들을 동정어린 눈만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Abstract>

Exile and Exodus in the New Testament

Prof. Hyung Dae Par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First,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the exodus themes in the New Testament (NT). It starts by considering Jesus' death as a new exodus and surveys briefly the NT texts in which the exodus theme comes to the fore typologicall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studies on the new exodus theme in the NT have focused on how exodus themes found in the Old Testament (OT) are reappropriated in the NT. For instance, how the new exodus theme in Isaiah has reverberations throughout the Acts of the Apostles. These recent studies mainly use intertextuality, rather than typology, as their primary methodolog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udy on the exodus in the NT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fundamental on the basis of OT theology. To this end, I employ Loewenstamm's exodus motives and themes: the plagues of Egypt, the slaying of the firstborn and the paschal lamb, the exodus, and the parting of the sea (four motives), the Sinai covenant, the conquest of Canaan, and the Davidic tradition of Zion (three themes). By using this suggested framework,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NT describes Jesus as having lived a life of exodus, that Jesus also lived a life of exile in order to fulfill God's promise and to make God's people experience a new exodus from sin, and that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live a life of exile for the Gospel and for others' new exodus.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pplied to the context of Korea, which celeb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on August 15, 2015. This study proposes that many Koreans who had gone into exile by the Japanese to Russia, China, Hawaii, and so on, now should be honored for their courage and resilience.